

■ 교라쿠컵 한·일여자프로골프 대항전 내일 개막

# 한국 "일본에 한수 지도"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을 상대로 한수 지도에 나선다.

무대는 올해 8회째를 맞는 교라쿠컵 한일 여자프로골프 대항전. 1999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한국은 1, 2회 대회에서 일본에 무릎을 꿇었지만 3회 대회부터 작년까지 5회 연속 일본을 눌러 통산 전적 5승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양국을 오가며 치르던 대회를 작년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열기로 하는 등 '홈 어드밴티지'를 양보하며 한수 접어왔다.

올해는 12월1일과 2일 이틀 동안 일본 후쿠오카의 센추리골프장(파72·6천501야드)에서 열린다. 작년과 같은 장소이다.

경기 방식도 양팀이 12명씩 내보내 1대1 스트로크매치플레이로 맞붙어 이기면 승점 2점, 비기면 승점 1점을 받아 총점에서 앞선 쪽이 우승권을 가져간 작년과 똑같다.

우승팀에는 1인당 300만엔씩 모두 3천 900만엔이 돌아오고 전 팀 선수도 1인당

## 통산 5승 2패로 압도적 우위

## 김미현·박세리 등 12명 출전

150만엔씩 받는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한국은 선수 구성이 작년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일본은 젊은 선수로 물갈이를 했다는 점이다.

한국팀은 주장 김미현(30·KTF)을 비롯해 박세리(30·CJ), 장정(27·기업은행) 등 한일전 단골 출전 선수들이 간판이다.

이들 셋은 한일전 5회 연속 우승이 이끈 주역들이다.

장정이 17점(7승3무1패)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뽑아냈고 김미현(7승3패), 박세리(6승2무4패)가 14점씩 따냈다.

게다가 한일전에서 3승을 올리며 한번도 진 적이 없는 신현주(27·다이와)와 역시 2승을 따며 패전이 없는 이지영(22·하이마트), 3승1패의 이선화(21·CJ) 3승2패의 전

미정(25·투어스테이지) 등이 든든하다.

작년에 처음 출전해 1승1패에 그쳤던 신지애(19·하이마트)는 이번에는 에이스 역할이 기대된다.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양팀 선수 26명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8위이다.

계속되는 패전에 독이 오른 일본은 평균 연령 23.77세의 젊은 팀으로 변신했다.

작년에 일본은 경험이 풍부한 후지이 가스미, 후쿠시마 아키코, 핫토리 미치코 등 30대 노장 위주로 팀을 꾸려 평균 연령이 28.3세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요코미네 사쿠라(21), 모로미자토 시노부(21), 사이키 미키(23), 아리무라 치에(20), 하라 에리나(20), 후지타 사이키(21) 등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30대 선수는 한일전에서 6승1무2패의 뛰어난 실적을 남긴 요네야마 미도리(31) 등 2명 뿐이고 대부분 20대 초반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FA컵 2연패 도전"

### 전남 응원단 3천여명 구성

### 내달 2일 포항 2차전 대비

사상 첫 FA컵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프로 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3천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응원단을 꾸린다.

29일 전남구단에 따르면 '위너 드래곤즈' 서포터스를 비롯한 홈 팬들은 12월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FA컵 결승 2차전이 열리는 포항으로 70대가 넘는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들은 지난 25일 FA컵 결승 홈 1차전 때 단체입장권 2천 장을 구입한 데 이어 이번 원정 응원을 위해 1천500명의 응원단을 조직했다. 광양시청도 5대의 원정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광양제철소 직원들은 15대 원정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떠나고 광양만 8개 시·군 축구협회 응원단과 여수, 순천의 축구 클럽, 제철초등학교 응원 동아리 200명도 현장 체험으로 포항 원정을 갈 계획이다.

전남은 서포터스를 포함해 이번에 최소 3천 명 이상의 응원단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깨 좀 실례" 29일 영국 리버풀 앤필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경기에서 FC포르투(포르투갈)의 밀란 스테파노프(위)가 리버풀의 안드리 보로닌과 공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천수 복귀설 '술술'

### 측근 "국내 이적 타진"

### 에이전트 "사실무근"

네덜란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고 있는 이천수(26·페예노르트)가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일시 귀국하면서 국내 복귀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천수는 귀국 전 네덜란드에서 일부 K-리그 구단에 이적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감기 몸살 증세로 인한 컨디션 난조와 향수병 등을 이유로 구단으로부터 2주 휴가를 얻어 28일 귀국했다.

이천수는 취재진을 피해 출국장을 빠져나가 귀국 배경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한창 시즌 중 휴가에 대해 현지 적응 실패로 구단과 불리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천수의 에이전트사인 IFA스포츠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천수가 페예노르트 구단과 마찰로 K-리그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천수는 휴가를 마치고 팀 합류를 위해 12월 11일 또는 1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A는 "이천수는 이번 일시 귀국이 향수병이나 현지 적응 실패, 구단과 마찰 등으로 비쳐 유럽 무대에서 좌절로 와전되고 있는 상황에 당황해 하면서 반드시 성공해 오해를 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천수의 해외 이적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천수가 현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다른 경로로 국내 복귀를 추진 중일 가능성이 있다.

K-리그의 한 관계자도 "이천수가 최근 수도권 한 팀에 이적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천수가 페예노르트 입단 후 반 시즌도 못 마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결립 둘은 많다.

가장 큰 벽은 몸값이다. 페예노르트는 지난 8월 말 울산 현대와 이천수의 완전 이적(4년) 계약을 하며 200만 유로(약 27억5천만원)의 이적료를 지급했다. 고액의 몸값을 내고 선뜻 이천수를 영입할 구단이 나올 지 의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0일(금)  
▲코리아 오픈 국제유도(14:10-KBS1)  
▲배구월드컵 남자부 4라운드 <대한민국:이집트>(15:00-KBSNSPORTS)  
▲프로농구 <SK:KT&G>(18:50-Xports), <모비스:동부>(18:50-SBS스포츠)  
▲2007 The Nedbank 골프챌린지 2R(21:00-Xports)

## 호남대 이민창 내년 KPGA 풀시드 확보

### 캘리포니아스쿨 25위 통과

장흥출신의 골프 기대주 이민창(호남대 2년·동아회원권·사진)이 2008년 풀시드권을 확보해 내년 코리아투어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됐다.

이민창은 지난 23일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 남코스(파 72)에서 막을 내린 '2008 하나은행컵 코리아투어 캘리포니아스쿨' 3차전 4라운드에서 총 4언더파 284타를 쳐 40명 선발전 중 25위로 시드권을 확보했다.

2008년 시드권 선발전에는 국내 353명의 PGA 프로 선수가 신청했으며 2라운드 경기성적으로 상위 100명을 먼저 선발했다.

이후 투어 상급순위 61~80위까지 20명이 합류해 총 120명이 이번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최종 4라운드 경기를 치렀으며 상위랭커 40명이 선발전 시드권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년도 코리아투어에는 이날 선발전 40명과 올 코리아투어 상급순위 60위까지의 선수, 2부 투어 상급순위 6명, 외국인 시드권자 약 30명이 참가한다.

가한다.

이민창은 지난해도 2부 투어 상급순위 4위로 자동 시드권을 확보해 2007년 코리아투어에 첫 출전해 14개 대회에 참가해, 8개 대회 예선을 통과했다.

한편, 이민창의 골프스승이면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박성필(37·포틴)도 이번 캘리포니아스쿨에서 16위에 랭크돼 스승과 제자가 함께 2008년 시드권을 확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인외선 불에 타지 않음! 열기 히터에도 불량이 없습니다.

원격외선 프러미엄 열방히터! 활력 조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병내,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난방에 있어! 최첨단 공기 순환이 있습니다.



무등산업 무등산업 사주 본점 340-8100000 호남 본점 02-7095-0100, 02-7095-0101

무등산 자락의 푸른호수 화순 사방의 전원 Village

##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자연 IN (NATURE IN RESIDENCE)

300평 이상 전원주택 분양  
100평 이상 전원주택 분양  
50평 이상 전원주택 분양  
200평 이상 전원주택 분양

분양사무소: 061-653-9870